

**○ 외환리포트**

<b>전일동향</b>	1,110원 저점 인식에 따른 매수세와 네고 물량 둔화로 반등
-------------	------------------------------------

- 전일 달러-원 환율은 1,110원 저점 인식에 따른 매수세가 탄력을 받고, 네고 물량 둔화의 영향으로 반등했다.
  - 개장초부터 1,110원에 저점을 찍으면서 달러화는 저점 매수세가 탄력을 받았다. 저점 결제수요와 외국인 역송금 수요 등이 하단을 떠받치면서 달러화는 레벨을 높였다. 수출업체 네고 물량이 둔화되면서 특별한 매도 요인이 없어 6거래일 만에 반등하며 1,118.5원에 거래를 마쳤다.
  - 코스피는 미국 증시 훈풍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으나 외국인 매도 전환 압박에 방향을 틀었다. 다만 오후들어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돼 강보합으로 1,923.84에 마감했다.
- ?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112.00	1118.50	1110.00	1118.50	1115.3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143.09	1150.31	1131.66	1139.99

<b>금일 전망</b>	스왑시장 급락 경계심과 북한우려, 엔약세 지속으로 상승예상
--------------	----------------------------------

- 금일 달러-원 환율은 전일 스왑시장 급락에 대한 경계심과 그동안의 북한 우려, 엔 약세, 외국인 주식 순매도 등 리스크 요인이 딱히 개선된 것이 없어 레벨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 시장 참가자들은 수급 공방이 계속되는 방향성 없는 장세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이에 수출업체 네고물량과 외국인 주식 역송금 수요 사이에서 등락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북한의 리스크, 엔 약세, 외국인 주식 순매도 등 대외 변수들이 여전히 개선된 면이 없어 달러 매도가 탄력을 받기에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전일 독일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루머가 돌면서 불안감이 커지기도 했다. 따라서 이날 달러화는 1,120원선 부근으로 레벨을 높인 후 차츰 수급 공방을 벌이는 장세가 예상된다.
  - 뉴욕증시는 은행 등 기업실적 부진, 유럽 자동차 판매 큰 폭 감소, 독일 국가신용등급 강등 루머 등으로 하락했다.
- ?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115.00 ~ 1128.00 원
------------------	---------------------

<b>체크포인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2078.08억원</li> <li>■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3.25원상승</li> </ul>
--------------	---

■ 美 다우지수 : 14618.59, -138.19p(-0.94%)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88.85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5494 억원

##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